

해외 대량주문 받고도 '돈줄' 막혀 건조 못해 조선업체 자금 지원 시급

전남도·목포상의 등 대통령에 대책 호소

전남 서남권의 새 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조선업체들이 해외로부터 대량 선박 주문을 확보하고서도 금융기관들이 '돈줄'을 죄는 바람에 선박 건조를 멈추고 있다. 지역 조선소의 운영난은 곧바로 290여 개 조선기자재 업체들의 경영난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선타운 및 조선산업클러스터 조성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전남지역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전남도와 지역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재 목포와 해남, 신안 등지에 들어선 57개의 조선소 가운데 상당수가 도크 건설이나 선박 건조에 필요한 시설·운영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고 있다.

조선소들이 수주한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선주로부터 통상 5차례에 걸쳐 선수금을 받아야 하지만, 선수금을 받는데 필요한 '선수금 환급보증(RG-Refund Guarantee)'을 국내 금

융기관들이 발급해주지 않고 있어 선박 건조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지역의 한 조선업체는 60여 척, 3조 원 상당의 선박 건조 물량을 수주해놓고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업체는 8천여 명 직원을 연달아 선주에게 인도해야 하지만 RG를 발급받지 못한다. 1천700여 원대의 시설자금도 대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른 업체도 도크를 추가 건설하는데 드는 시설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등 지역 대다수 중·소 조선업체들이 자금난과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대불산업단지 등지의 290여 개 협력업체도 납품대금 지연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지역 조선업계가 이처럼 금융권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소형 조선사들의 시장 진입을 둘러싸고 과잉투자 논란이 일고 있는데다, 조선업종 호황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선부론 예측이 일부에서 제기되면서 금융권이 자금지원 기준을 강화하거나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지역 조선업체를 둘러싼 이같은 논란과 우려가 단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경쟁 상태로 꼽히는 중국에 비해 국내 조선업체의 기술력이 몇 단계 위인데다, 세계적으로도 자유무역과 시장경제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국가간 물동량 증가와 이에 따른 선박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지역 조선업체 위기설'은 금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 중·소형 조선업체를 견제하기 위해 기존 대형업체들이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업계에 대한 금융권의 지원 축소 또는 중단 방침이 기존 선박 대형업체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역 중·소형 조선소에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와 목포시, 목포상공회의소 등은 전남지역 조선소들의 이같은 자금난과 관련 최근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역 조선업종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심사 강화 조치를 풀어주도록 건의를 보내는 등 지원 대책을 적극 호소하고 있다. /총행기자 redplane@

“광주비엔날레와 춤을 그리고 인연을”



자원봉사자들 “화이팅”

제7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이 이를 앞두고 다가온 가운데 비엔날레 자원봉사자들이 2일 비엔날레전시관 앞에서 성공대회를 다짐하는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위직라기자 jrwi@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와 춤을, 비엔날레에서 인연’

오는 5일 개막되는 제7회 광주비엔날레(5일~11월9일)는 시민들의 참여가 대회의 ‘성공’을 좌우(?)한다. <관련기사 16면>

‘광주비엔날레와 춤을, 비엔날레에서 인연’

그 어느 해보다 시민들과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되기 때문이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이하 재단)은 개막일인 오는 5일 오후 7시 광주 동구 금남로 1가 일대에서 ‘금남로에서 춤을, 비엔날레에서 인연’ 행사를 갖는다.

비엔날레의 주전시 가운데 하나인 ‘제안(Position papers)’ 색선 출판작인 클레어 탄콘스(미국)의 ‘봄’ 퍼포먼스를 시민과 관람객들이 함께 어우러져 재현하는 행사다. ‘봄’은 1980년 5월 광주시민을 하나로 이끌었던 금남로의 열기를 되살리는 퍼포먼스로,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춤을 추면서 금남로 일대를 행진한다. 클레어 탄콘스는 시민들의 행렬을 카메라에 담아 비엔날레 기간동안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상영하게 된다. 광주 시민들의 참여가 비엔날레의 작품으로 국내외 관람객들과 만나게 되는 특별한 이벤트다.

도심 곳곳 시민 참여 퍼포먼스

5·18 대동세상 댄싱 퍼레이드

<D-2>

이와 함께 북구 중외공원내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일대에서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펼쳐진다. 재단은 중외공원내 비엔날레 전시관 주변 등지에서 관람객들이 음악을 듣고, 춤을 추는 참여 퍼포그램인 ‘수많은 이정표’를 운영한다.

광주비엔날레의 관문인 비엔날레 전시관 앞 테마공원은 66일간 스튜디오 카페 ‘발자국’으로 변신한다. 카페 ‘발자국’에서는 관객들

이 글과 그림으로 남기는 ‘관람객들의 이정표 보고서’와 시민들의 책을 기증받아 어린이도서관에 전달해주는 ‘비엔날레 인연복덕방’이 문을 연다.

오후 시간대에는 어린이 관람객들이 직접 가사를 쓰고 노래를 부르는 ‘방금 생긴 합창단’(10월11~26일)을 비롯해 ‘비엔날레 콘서트’(전 기간), ‘광주를 여행하는 공연’(9월12~11월9일), ‘월드 뮤직 공연’(9월28~10월26일) 등 이색 연주와 공연이 결집된다. 테마공원에서는 또 매주 토요일마다 포크, 국악, 퓨전 클래식, 퓨전 국악, 대중가요, 재즈, 가요 연주 등도 선보인다. /오경록기자 kroh@kwangju.co.kr

“UN 차원 여수엑스포 적극 지원”

반기문 사무총장 밝혀... 세계적 엑스포 ‘탄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엔(UN)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에 청신호가 켜졌다.

반 총장은 1일(스페인 현지시간) 스페인 아라곤 주 사라고사 시(市)에서 열리고 있는 사라고사 박람회의

‘한국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수 박람회는 한국과 여수 시민 만의 발전이 아니고 전 세계 공영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 총장은 “여수 박람회의 ‘살아 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는 유엔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추진하고 달성하려는 환경 문제, 기후변화 문제에 적합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주제”라면서 “유엔으로서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이 엑스포가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유엔이 한국 정부와 힘을 합칠 것”이라고 말했다.

반 총장은 또 여수박람회 대해 “물과 자연환경의 보존을 포함한 새로운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해 좋은 방향을 제시하는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와관련, “여수세계박람회가 반 총장의 지원 약속으로 세계적인 엑스포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세계인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환율 1,134원 ... 3년 10개월만에 최고

‘9월 위기설’로 촉발된 금융시장 불안이 계속되면서 원화 가치가 주시, 채권값이 동시에 떨어지는 ‘트리플 약세’가 이틀째 이어졌다.

<관련기사 11면>
 2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7.29포

인트(0.51%) 하락한 1,407.14로 거래를 마쳤다. 또 코스닥지수는 21.07포인트(4.79%) 급락한 418.14로 마감됐다.

원화 가치도 증시 급락의 여파로 이를 연속 ‘공두박질’ 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34.00원으로 마감됐다.

이는 전날보다 18.00원 폭등한 것으로 3년10개월 만에 다시 1,130원대로 치솟았다.

채권시장에서는 5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전날보다 0.08%포인트 오른 연 6.05%로 마감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유망학원 장학 55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www.nabun.ac.kr

전남과학대학
 www.jnsc.ac.kr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수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26 / 062-222-8111

062-2570-9318